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시·인천항만공사(IPA)·인천도시공사(iH)로 구성된 인천시 컨소시엄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5,906억원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향동 일원에 42만 9천㎡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인천시 컨소시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로 제출한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3자 공모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인천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개발·회계·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하여 인천시 컨소시엄과 협상을 통해 사업계획(안)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 조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말 본 사업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통해 인천지역의 오랜 숙원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와 항만물류업계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980)
	항만연안재생과		담당자	사무관 이제열 (044-200-5978)

참고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구역) 인천시 중구 북성동 및 향동 내 인천내항 1·8부두 일원
- (면적/기간) 429천㎡ / '24년~'28년
- (주요시설) 문화복합, 주상복합, 관광, 광장, 주차장, 공원 등
- (사업시행자) 인천시·인천항만공사(IPA)·인천도시공사(iH)

□ 추진 현황

- '23.12. 27.: 사업제안서 제출(인천시 → 해수부)
- '24. 3. 28.: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KMI)
- '24. 4. 29.: 제3자 제안공모(해수부)
- '24. 8. 8.: 사업제안서 평가(KMI)
- '24. 8. 21.: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통보(해수부)

□ 위치도

